

영어교육 63권 2호 2008년 여름

효과적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강후동(진주교육대학교)

김미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재희(경인교육대학교)

이선(공주교육대학교)

Kang, Hoo-Dong, Kim, Mi Kyung, Lee, Jai Hee, & Lee, Sun. (2008). A study on need analysis for developing effective English Experience Center programs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English Teaching*, 63(2), 333-359.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s and need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ir parents and teachers for developing English Experience Center programs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se preferences and need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353 students, 2,854 parents and 272 teachers and supervisors at 11 elementary schools and offices of education in 5 different areas. The results show that parents and teachers preferred having regular English classes in the English Experience Center utilizing discretionary activity hours and extracurricular classes to after-school programs during the semester. As for the ideal length of the programs, the groups preferred long-term programs to short-term programs at the center. In terms of the type of English Experience Center program; all the groups preferred situation-based programs to task-based and content-based programs. Culture-based programs were mostly preferred, but content-based programs were the least preferred by all three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English Experience center programs and English immersion programs were made at the end of the paper.

I. 서론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급증함에 따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의 신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로 말하거나 듣는 능력은 실제로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 이해(듣기, 읽기)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표현(말하기, 쓰기) 능력은 우리나라

라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미흡한 형편이다(권오량 외, 2006).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영어 사교육과 조기 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가 급증하고 지역간 계층간 영어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영어교육이 변화하는 학부모와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별 격차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한 가지 이유로 다양한 학습활동의 기회가 지역별로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영어관련 방과후 활동(예, 방과후 학교, 학원, 학습지 등) 시간이 많을수록 영어과 학업 성취도가 높다(조지민 외, 2007). 이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는 학습활동의 기회가 비교적 많이 제공되지만, 읍면지역 또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영어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늘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영어학습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어학습 기회 확대와 학생들의 영어에의 노출빈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에서 영어수업시수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초등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과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교육부, 1997). 이와 같은 목표에 비해서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영어가 주당 1시간, 그리고 5, 6학년에서 주당 2시간 수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3-6학년의 영어수업시수를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노출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영어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단위 초등학교에서는 유휴 교실을 이용하여 정규 또는 방과후 영어체험수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체험학습은 대체로 사전에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설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투입된 많은 예산을 생각하면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발표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하나인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는 기존의 영어마을보다는 보다 더 학습자가 가까스로 다가가 거점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시설을 두려는 것이다. 특히 각 시·도의 기존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해 소규모의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여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정규시간이나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면,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또한 영어학습기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해당지역의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립하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해당 지역의 학생에 맞는 맞춤형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적합한 영어체험학습시설을 구축, 운영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초등영어의 영어체험학습센터와 관련된 연구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임희주, 2005), 기존의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현황분석과 설문을 통해 영어체험학습센터 1, 2주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이재희, 2005), 영어체험학습시설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병천, 2007a)과 역할놀이 중심 영어체험학습시설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이병천, 2007b)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체험센터가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여 이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후, 이의 운영에 효율적인 센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어공교육 강화 실천방안’의 하나로 전국에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교사 및 담당 장학사, 그리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의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유형과 구성내용은 무엇이며, 효과적인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현황과 2007학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설 전국의 대도시를 포함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와 담당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에 맞는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효과적인 영어 습득을 위해 선호하는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형태, 학습프로그램의 유형, 학습프로그램의 내용,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 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워질 영어체험센터를 위해 효과적인 영어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II. 현황과 이론적 배경

1. 영어체험학습센터 현황

영어체험학습센터란 우리나라와 같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상황이 아닌 EFL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익힌 영어를 더욱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상황과 같이 만들어진 공간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교실과 다른 별도의 교육시설물과 교육시설공간을 말한다. 많은 학교에서는 영어체험센터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표 1은 2007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각 시도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김미경 외, 2007)에 최신 것을 더 첨가한 것이다. 전국의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약 154개이며 서울(37)과 충남(31) 지역에 가장 많고 경남(18), 전남(17), 충북(15), 전북(8), 광주(7), 울산(5), 부산(4), 대구(4), 대전(4), 경기(3), 대전(3), 경북(1), 강원(1) 순이다.

이들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 학교들은 사정에 따라 교실 주로 2, 3칸부터 8칸까지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활용하며 복도를 주로 이용하거나 아예 건물의 대부분을 활용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은 영어체험실과 학습실로 구분되어, 영어체험실에는 공항, 출입국사무소, 마켓, 병원, 은행, 우체국, 기내, 식당 등 상황체험을 위한 시설이 거의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황체험 코너만을 설치한 학교들은 단편적인 상황속에서의 활동을 체험해 보게 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현재 많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거의 같은 유형의 상황체험시설만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진정한 효과를 내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중에 어학실이나 도서실, 활동실 등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러한 공간을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면 시설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들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규시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고, 주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강사가 협력 또는 독자적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나 영어체험실을 이용한 수업 또는 책읽기 수업을 진행하며, 정규시간 프로그램에서는 상황 속에서 표현을 익히는 학습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다양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내용, 다른 교과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내용 및 영어책이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전국 학교내 영어체험학습센터 현황

지역	학 교 명	소계
	<지역 거점 영어 체험 센터> 당산초, 고산초, 시흥초, 광희초, 목현초, 은정초, 역삼초	
	<단위 학교 영어 체험 교실>	
서울	중곡초, 중목초, 상지초, 염리초, 가인초, 화랑초, 중평초, 남산초, 상광초, 장 충초, 흥인초, 신당초, 성내초, 가곡초, 대곡초, 대왕초, 언남초, 양재초, 잠원 초, 청담초, 포이초, 학동초, 문창초, 행당초, 행현초, 안암초, 중앙중, 서일 중, 신사중, 영동중	37
부산	과정초, 반여초, 구덕초, 과정초	4
대구	경운초, 복현초, 화동초, 용계초	4
광주	용두초, 월계초, 선창초, 서석초 거점영어체험센터, 본촌초, 전남중, 광주 과 학교	7
대전	대양초, 내동초, 대전 교육 연수원	3
울산	두서초, 옥서초, 두광중, 호계중, 대송중	5
경기	김포 고창초, 화성 기산초, 용인 보정초	3
강원	횡성 성남초 거점영어체험센터	1
	옥천 이원초, 진천 삼수초, 이월초, 초평초, 보은 수정초, 괴산 청안초, 청주 충북 서경초, 새터초, 사천초, 남성초, 개신초, 미원초, 비봉초, 제천여중, 청주 중 양여중	15
	홍성 홍남초, 갈산초, 광성초, 천안 용곡초, 신가초, 용소초, 논산 내동초, 성 덕초, 백석초, 청동초, 당진 석문초, 당진 외국어교육센터, 부여 송간초, 홍 충남 산초, 서산 부석초, 태안 시목초, 모항초, 서천 장학초, 청양 청남초, 합천초, 31 논산중, 논산 연무여중, 용남중, 서천 동강중, 예산 신암중, 충남 만리포중, 태안여중, 천안 성성중, 천안 광풍중, 청양 장평중, 청양 교육청	31
전북	이리 동산초, 전주 기린초, 순창초, 김제 죽산초, 남원 도통초, 임실 영어 체 험 센터, 진안 영어 체험 학습 센터, 부안 주산중	8
	나주 중앙초, 해남 동초, 영광초, 장흥초, 완도초 거점영어체험센터, 목포영 전남 어마을, 여수,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광 영 어 타운	17
	거창 아립초, 고성 삼산초, 김해 대곡초, 부곡초, 마산 석전초, 호계초, 사천 경남 삼성초, 삼천포초, 산청초, 창녕 부곡초, 창원 대원초, 용남초, 용지초, 양산 오봉초, 거창 셋별중, 삼천포 중앙여중, 함양중, 창원양곡중	18
	경북 영주초 거점영어체험센터	1
총계		154

2. 영어체험학습센터와 관련된 선행연구

최근 초등영어의 영어체험학습센터에 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영어마을의 영어체험과 관련해 분석한 연구(임희주, 2005)와 영어체험학습센터와 관련한 연구(이재희, 2005; 이병천, 2007a, b) 등이 있다. 임희주(2005)는 한 영어마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참가 전의 학습자의

특성, 학부모의 성향과 참가 후의 학습자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만족했던 체험수업과 수업을 통한 영어학습과는 관련이 적으며 학습자들은 자신이 수업시간에 스스로 발화했던 영어표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흥미 위주보다는 언어사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희(2005)는 최근의 기존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1주와 2주 합숙형과 비합숙형 프로그램의 교수요목과 운영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 125명, 학부모 80명, 교사와 교육전문직 각각 25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약 68%)이 영어의 4가지 기능 중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간으로서는 전체 응답자들이 2주 내외의 기간(약 52%)을, 학생들은 1주 이내의 프로그램(56.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는 초등학교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통합적 교과와 주제를 중심으로 1주와 2주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논문(이병천, 2007a)은 영어체험학습 시설의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영어체험학습 시설 현황을 알기 위해 전국 50개교의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연구학교 보고서를 분석하여 그 중 3 학교의 연구부장과 면담하여 영어체험학습시설과 관련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어체험학습 시설이 상황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36%), 그 다음으로 언어 기능이나 활동 유형에 따른 시설이 18%였다. 설문분석 결과 연구부장이 생각하기에 학습자들은 상황중심 영어체험학습 시설을 가장 선호하고(38%), 기능중심 영어 학습시설(14%)이 그 다음 선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중심의 체험학습시설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수업 중의 학습내용이 상황중심 시설과 상이한 경우가 많고 실제상황과 같은 활동의 구성이 필요하며 학습자 중심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이들 영어체험학습시설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융통성과 다양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인용된 논문들은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당시의 필요에 부응한 연구들이었다.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생겨났고 이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후 이런 영어체험학습시설과 학생과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생겨난 초창기의 영어체험학습 시설이나 센터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그 시기의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영어체험학습시설 현황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제 더욱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대부분의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이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충분한

준비없이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센터의 필요성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이제 더욱 인식하고 있고, 초창기의 운영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경험했거나 인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 센터와 그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그들의 요구와 선호도, 거는 기대 등을 조사,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영어체험학습센터의 건립과 운영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중심 영어교육

외국어를 배우는데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문화를 언어의 4기능 다음인 다섯 번째로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ramersch, 1993). 최근에는 원어민과의 의사소통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에 중점을 두는 추세이다(김영미, 2006). 제7차 교육과정부터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지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으나, 문화의 내용이 영어권 국가로 제한되어 문화적 사대주의 등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영어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우리문화로 범위를 확대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따라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시설을 설치할 때도 일상적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영어사용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다양한 영어사용국의 문화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4. 내용중심 영어교육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내용중심 영어교육(Content-Based Instruction, 이후 CBI로 약칭)에 관심이 높다. 적지 않은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CBI를 통해 영어학습을 심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CBI는 학습자의 실세계, 즉 학습현장의 교과내용과 외국어 기능을 통합하여 가르치려는 시도이며, 이런 과정에서 습득된 외국어 능력은 다른 교과의 학습에 이용될 수 있다. Curtain과 Pesola(1994)는 외국어와 교과내용을 통합하는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몰입 프로그램(immersion program)은 목표언어로 교과과목을 가르치며 외국어와 교과내용이 가장 강하게 통합된 형태이다. 둘째, 양방향 몰입/이중언어 프로그램(two-way immersion/bilingual program)은 목표어의 모국어 사용자와 비모국어 사용자가 한 반에서 함께 학습하는 유형이다. 셋째, 언어보호 프로그램(sheltered English program/sheltered language instruction)은 이중

언어 교실에서 외국어 숙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된 교과과정과 교재를 적용하는 유형이다. 넷째, 내용중심 외국어/부분몰입 프로그램(content-based FLES/partial immersion program)은 해당 학년의 일부 과목은 외국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내용관련 외국어 프로그램(content-related FLES program)은 해당 학년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면서 학력을 증강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유형이다.

CBI 프로그램들은 외국어교육과 내용교육과의 통합에 있어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Mohan, 1986). 첫째, 내용교육에 의한 외국어교육(language teaching by content teaching)은 내용교육에 초점을 두는데 외국어 기능이 동시에 발달하는 유형이며, 몰입 프로그램과 양방향 몰입/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내용교육 동반 외국어교육(language teaching with content teaching)은 외국어와 내용 교육에 동일한 초점을 두는 유형이며, 이에는 언어보호 프로그램과 내용중심 외국어/부분몰입 프로그램 및 내용관련 외국어 프로그램이 있다. 셋째, 내용교육을 위한 외국어교육(language teaching for content teaching)은 교과내용 학습에 필요한 특정 언어를 배우는 유형이며, 특정목적에 위한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실시하는 학교도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타교과목을 영어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CBI를 적용함으로써 영어체험과 교과내용 학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영어도서관 및 멀티미디어 언어자료실

아동들의 영어책 읽기의 긍정적 효과는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구애란, 2002; 김혜정, 2002; 조경숙, 2000; Krashen, 1989, 1993).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다양한 읽기자료를 활용한 음성언어 위주의 활동을 중심으로 총체적 언어(Whole Language)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영어책 읽기는 독해활동을 포함할 뿐 아니라,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를 읽어줄 때는 듣기 연습이, 영어책을 읽어준 사람이나 친구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말하기 연습이,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그림이나 간단한 글로 적을 때는 쓰기 연습이, 친구들이 쓰거나 그린 것을 돌려 읽을 때는 읽기 연습을 하면서 영어를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Goodman, 1986).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하여 영어권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lley (2000, 2001)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근간하여 그림과 삽화가 많으며 어린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영어책들을 중심으로 함께 책 읽기(Shared Reading), 언어경험접근법(Language Experience Approach)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읽기 활동이 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읽고 쓰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FL 교육환경에서 부족한 영어 노출의 기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책을 비롯한 다양한 읽을거리와 이와 함께 제공되는 오디오나 비디오, 교육용 CD-ROM 등 다양한 매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보조 자료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언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시설의 하나로 영어도서관 혹은 멀티미디어 언어자료실을 만들어 수업 시간 외에 자기 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영어도서관이나 멀티미디어언어자료실에서의 영어책읽기, 영어비디오/DVD 보기 등은 양질의 언어 입력원이 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2007년도에 교육부는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서울 1개교, 광주 1개교), 농산어촌(횡성 1개교, 완도 1개교), 그리고 도농복합시(영주 1개교)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한 개의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인근 및 지역 초등학생에게 상시 영어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게 될 학생들, 그들의 부모와 교사 및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운영형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학습활동,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교사 및 담당장학사와 학부모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형태와 기간은 어떤 것인가?

연구 문제 2: 교사 및 담당장학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은 효과적인 영어습득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학습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지를 원하는가?

연구 문제 3: 교사 및 담당 장학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은 영어습득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도에 교육부지정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될 5개 거점 초등학교와 인근 11개 학교 교사 및 담당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수는 교사 및 담당자 272명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353명, 1학년~6학년 학생의 학부모 2,854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07년 10월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대상중 학생응답자는 설문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이해하기 쉬운 5-6학년 학생을 주로 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담당자 272명의 기초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경력을 살펴보면, 1년~5년이 85명(31.6%), 6년~10년이 47명(17.5%), 11년~15년이 15명(5.6%), 16년 이상이 122명(45.4%)이며, 교사의 경우 현재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44명(17.9%), 2학년 36명(14.6%), 3학년 37명(15.0%), 5학년 41명(16.7%), 6학년 44명(17.9%)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들 중 32명(12.5%)은 영어전담교사이며, 68명(26.7%)은 담임으로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고, 11명(4.3%)은 교환수업으로 영어를 지도하며, 144명(56.5%)은 현재 관리자, 장학사, 영어를 지도하지 않는 교사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거점 초등학교 및 인근 초등학교 학생 2,353명의 기초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서울이 292명(12.4%), 광주 461명(19.3%), 강원도 횡성 512명(21.8%), 경북 영주 461명(19.6%), 섬 지역인 완도에서 634명(26.9%)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학년별로 보면, 5학년 1,247명(53.1%)과 6학년 1,085명(46.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211명(51.7%), 여학생이 1,130명(48.3%)이었고, 이들 중 1,782명(76.0%)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거점 초등학교 및 인근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2,854명의 기초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서울이 843명(29.7%), 광주 701명(24.7%), 횡성 347명(12.2%), 영주 669명(23.6%), 완도에서 274명(9.6%)의 학부모가 참여하였고, 자녀의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11.5%, 2학년 12.1%, 3학년 10.7%, 4학년 16.0%, 5학년 27.2%, 6학년 22.5%였다. 이들 중 1,166명(43.2%)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 저학년 학생일수록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도구

1) 설문문항의 개발 및 설문조사 방법

교사 및 관리자용 설문문항은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유형, 교수요원의 구성 및 역할, 학습활동, 효과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자아개념 등 배경변인과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유형, 교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요구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수업 시작 전이나 후에 일시에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해당란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학부모용 설문지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유형, 교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기대, 영어학습활동 유형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 및 관리자용 설문과 비슷하였다.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하게 될 1학년~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문항은 연구문제에 따라 세부 하위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설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으로 된 5등분의 리커트(Likert) 측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교육자료 유형간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형 설문도 실시하였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주관식 설문문항도 포함하였다(부록 참조). 설문문항은 공동저자 2명이 1차로 개발하고 다른 공동저자들과 설문문항을 검토한 후 수정하였다. 이후 4명의 현장교사와 1명의 장학사를 대상으로 다시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후 2차 수정을 한 후, 2개교 약 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을 3차로 수정보완을 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도움으로 설문문항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다듬어야 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부모의 설문지에는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영어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것이다”란 문항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적절하지 않아 학생 설문지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영어단어를 많이 습득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보기 문항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어단어를 많이 알게 될 것이다”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는 경우 교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용어설명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2) 설문지 유형별 문항의 구성 및 특성

(1) 교사 및 담당장학사용

교사 및 담당장학사용 설문지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을 담당하거나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도할 장학사, 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유형(4문항), 교수 요원(2문항), 영어체험학습 유형(4문항),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기

대(7문항), 영어학습태도에 대한 기대(4문항), 프로그램 내용 구성(12문항), 교재(1문항), 행정적 지원(3문항) 등을 조사하는 항목들로 문항을 구성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하위 구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4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 학부모용

학부모용 설문지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유형(4문항), 교수 요원(2문항), 영어체험학습 유형(4문항),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7문항), 영어학습태도에 대한 기대(4문항), 프로그램 내용 구성(12문항), 교재(1문항), 행정적 지원(1문항), 학부모로서의 기대(3문항) 등을 조사하는 항목들로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4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3) 학생용

학생용 설문지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나의 영어공부(9문항), 교사(2문항), 영어체험학습 내용(4문항),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7문항), 영어학습태도에 대한 기대(4문항), 프로그램 내용 구성(12문항) 등을 조사하는 항목들로 문항을 구성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하위 구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4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컴퓨터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패키지(ver. 12.0)를 사용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유형, 교수 요원의 구성 및 역할, 학습활동, 효과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지역별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으나 상호작용이 없었고 독립적이었으므로 다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빈도 및 백분율에 대한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증, 사후검증 방식으로는 Scheffé($\alpha=0.05$) 검증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별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5단계의 리커트 측정 방식에서 4 또는 5라고 응답한 경우와 1 또는 2라고 응답한 경우의 빈도 및 백분율을 합산하여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연구문제별로 나누어 그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형태와 기간

먼저 효과적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자(교사와 장학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정규시간 중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의 4가지 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게 하였다. 그 결과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chi^2=56.76, df=3, p<.001$). 담당자 267명 중 100명(37.5%)이 정규시간 중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규 학교 수업 중에 해당하는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체험센터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이 방과후 프로그램(89명, 33.3%), 방학 중 프로그램(57명, 21.3%), 주말 프로그램(21명, 7.9%) 순이었다. 이들은 일회적인 행사성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영어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담당자들의 근무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학부모들도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정규시간 중 프로그램(1,559명, 56.8%)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방과후 프로그램(574명, 20.9%), 방학 중 프로그램(329명, 12.0%), 주말 프로그램(281명, 10.2%) 순으로($\chi^2=1544.72, df=3, p<.001$), 담당자와 같은 순서였다.

표 2
효과적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형태

응답자	프로그램	응답빈도	(%)	$\chi^2(df)$
담당자	정규시간 중 프로그램	100	37.5	***56.76(3)
	방과후 프로그램	89	33.3	
	주말 프로그램	21	7.9	
	방학 중 프로그램	57	21.3	
	합계	267	100.0	
학부모	정규시간 중 프로그램	1559	56.8	***1544.72(3)
	방과후 프로그램	574	20.9	
	주말 프로그램	281	10.2	
	방학 중 프로그램	329	12.0	
	합계	2743	100.0	

*** $P<.001$, * 정규시간 중 프로그램: 특별, 재량시간 중 프로그램

다음의 표 3은 영어 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적절한 기간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기간별로 응답자들의 선호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으며 ($\chi^2=266.66$, $df=4$, $p<.001$) 정규프로그램의 기간은 담당자들이 한 학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9.9%로 가장 많았고, 2개월(13.0%), 1개월(12.2%), 3개월(10.3%), 2주(4.6%)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기간 역시 한 학기가 47.7%로 가장 많았고, 3개월(22.5%), 2개월(12.6%), 1개월(11.8%), 2주(5.3%)의 순으로 선호도에서 차이가 났다($\chi^2=145.48$, $df=4$, $p<.001$).

한편, 학부모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규 프로그램의 기간도 담당자와 비슷하였다. 역시 한 학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8.4%로 지배적이었다. 그 다음이 12주(3개월, 15.3%)가 많았으며, 4주(10.8%)가 그 다음이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서도 한 학기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 12주(15.4%), 4주(13.6%) 순으로 선호하였다. 대체적으로 담당자나 학부모들은 모든 프로그램의 기간이 비교적 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재희(2005)의 연구에서처럼 초등학교사는 2주 내외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한 초등영어 담당자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실제적인 영어능력향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적절한 기간

응답자	기간	방과후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		
		빈도	(%)	$\chi^2(df)$	빈도	(%)	$\chi^2(df)$
담당자	2주	14	5.3	***145.48(4)	12	4.6	***266.66(4)
	4주	31	11.8		32	12.2	
	8주	33	12.6		34	13.0	
	12주	59	22.5		27	10.3	
	한 학기	125	47.7		157	59.9	
	합계	262	100.0		262	100.0	
학부모	2주	239	8.7	***2069.89(4)	208	7.5	***2599.20(4)
	4주	374	13.6		298	10.8	
	8주	218	7.9		219	7.9	
	12주	430	15.6		422	15.3	
	한 학기	1492	54.2		1612	58.4	
	합계	2753	100.0		2759	100.0	

*** $P < .001$

표 4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이다. 상황중심체험, 과업중심체험, 문화중심체험, 내용중심체험 중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 구성을 선호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물어 조사해 보았다. 이들간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석을 하였고 사후분석(Scheffé)도 하였다. 표

4를 보면, 담당자들은 상황중심체험(a), 내용중심체험(b), 과업중심체험(c), 문화중심체험(d) 중에서 상황중심체험을 가장 선호하였고(4.24), 그 다음은 문화중심체험(3.86)과 과업중심체험(3.83)이며, 그 다음 순서가 내용중심체험(3.29)이었다 ($F=50.06, p<.001, a > d, c > b$). 실제 5단계의 응답빈도에서도 상황중심체험(예: 레스토랑, 입국심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92.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실수업에서 체험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매력과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아직 기존 영어마을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과업중심체험(예: e-card 작성, 감사편지쓰기)과 문화중심체험(예: 축제, 전통의상체험)이 각각 77.7%이었으며, 내용중심체험 프로그램(예: 수학, 과학, 체육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65.0%)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유형을 표 4를 보면서 살펴보면, 상황중심체험(3.97)과 문화중심체험(3.90), 과업중심활동(3.83), 교과 내용중심체험(3.7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F=55.18, p<.001, a > d > c > b$). 이와 같은 결과는 담당자의 설문결과와 거의 같은 것이며 차이점은 담당자는 문화중심체험과 과업중심체험이 같은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학부모에서는 문화중심체험이 과업중심체험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부모보다 교사와 장학사들이 과업중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유형의 중요도에 대한 일원배치분산

담당자	프로그램유형	평균	표준편차	df	F	P	Scheffé
담당자	a. 상황중심체험	4.26	0.79	3/1073	50.06	.00	a>d,c>b
	b. 내용중심체험	3.29	1.07				
	c. 과업중심체험	3.83	0.87				
	d. 문화중심체험	3.86	0.94				
학부모	a. 상황중심체험	3.97	0.80	3/11122	55.18	.00	a>d>c>b
	b. 내용중심체험	3.70	0.90				
	c. 과업중심체험	3.83	0.79				
	d. 문화중심체험	3.90	0.79				
학생	a. 상황중심체험	3.55	1.11	3/9272	288.17	.00	d,a>c>b
	b. 내용중심체험	2.81	1.25				
	c. 과업중심체험	2.94	1.21				
	d. 문화중심체험	3.63	1.19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체험중심(3.63), 상황체험중심(3.55)이 같은 수준에서 가장 높고, 다음이 과업중심체험(2.94)이며 내용중심체험(2.81) 순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F=288.17, p<.001, d, a>c>b$). 실제 학생들의 5단계 응답빈도에서도 문화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61.2%로 가장 많았고, 상황체험중심이 좋다는 응답

(53.8%)도 상당수 있었다. 학생들이 문화중심체험에 많이 응답한 것은 접근하기 쉽고, 호기심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중심체험이 담당자와 학부모, 학생으로 갈수록 상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중심 프로그램은 모두 가장 낮았다. 이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흥미유발은 중요하며, 특히 학생들은 흥미를 일으키는 내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규 수업 이외 다른 교과에서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황중심체험이 전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설립 목적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켜 주려는 것이므로 일회성 체험에 그칠 수 있는 기존 상황중심 프로그램을 좀 더 영속성 있게 개발하고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교사 및 담당장학사, 학부모,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영어체험센터 학습프로그램의 내용구성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학습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필요한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응답하도록 담당자, 학부모,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각각의 문항은 장소 및 상황체험활동, 영어로 배우는 과학, 영어로 배우는 수학, 영어로 배우는 사회, 영어로 배우는 체육, 영어로 배우는 미술, 영어구현 동화를 듣고 책 만들기, 영어 연극 교실, 영어방송국운영, 댄스, 노래, 요리교실, 영어 도서관 및 멀티미디어 자료 센터운영, 등이었다. 그 결과는 각 문항 내에서 응답빈도를 내고난 후, 표 5와 같이, 사후검증을 하였다.

담당자의 설문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선호하는 영어거점학습센터의 학습프로그램 운영형태에서처럼 장소 및 상황에 대한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았고(4.25), 영어 연극 교실(4.11), 댄스, 노래, 요리교실(4.05), 영어구현 동화를 듣고 책 만들기(3.92), 영어 도서관 및 멀티미디어 자료 센터(3.84)가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얻었으며, 교과내용 중심 프로그램(과학, 수학, 사회, 체육, 미술)들은 위의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이 교과목들은 대개 응답평균이 낮았고(미술: 3.32, 체육: 3.30, 사회: 3.21, 과학: 3.20, 수학: 3.14), 사후검증을 해 본 결과 이들 과목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학부모의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묻은 설문결과는 학부모들 중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상황체험활동(3.98)과 영어 연극 교실(3.97), 구연동화 듣고 책 만들기(3.93), 영어도서관 및 멀티미디어 자료 센터 운영(3.87), 노래, 댄스, 요리교실(3.83), 영어방송국 운영(3.73)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타 교과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수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과 비슷하게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어로 배우는 타 교과들은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영어도서관 및 멀티

미디어 자료 센터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는 표5의 사후 검사에 볼 수 있듯이 이들 교과간 선호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i > d, b, c, f, e$). 이런 결과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타 교과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는 꼭 필요한지, 교과목별로 차이가 있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거나 잘 모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구성 필요에 대한 일원배치분산

응답자	프로그램 내용	평균	표준편차	Df	F	P	Scheffé
담당자	a. 상황체험활동	4.25	0.67	10/ 2874	76.25	.00	a>g>i>f, e, d, c, b h, j> i a>k>f, e, d, c, b
	b. 영어로 배우는 과학	3.20	0.83				
	c. 영어로 배우는 수학	3.14	0.82				
	d. 영어로 배우는 사회	3.21	0.82				
	e. 영어로 배우는 체육	3.30	0.83				
	f. 영어로 배우는 미술	3.32	0.85				
	g. 영어구현동화 듣고 책 만들기	3.92	0.71				
	h. 영어연극교실	4.11	0.65				
	i. 영어방송국 운영	3.62	0.77				
	j. 노래, 댄스, 요리교실	4.05	0.72				
	k. 영어도서관, 멀티미디어센터	3.84	0.81				
학부모	a. 상황체험활동	3.98	0.75	10/ 30209	253.17	.00	a, h>k, j>I g>j i>d, b, c, f, e
	b. 영어로 배우는 과학	3.47	0.76				
	c. 영어로 배우는 수학	3.45	0.77				
	d. 영어로 배우는 사회	3.48	0.78				
	e. 영어로 배우는 체육	3.43	0.80				
	f. 영어로 배우는 미술	3.43	0.82				
	g. 영어구현동화 듣고 책 만들기	3.93	0.75				
	h. 영어연극교실	3.97	0.76				
	i. 영어방송국 운영	3.73	0.80				
	j. 노래, 댄스, 요리교실	3.83	0.82				
	k. 영어도서관, 멀티미디어센터	3.87	0.79				
학생	a. 상황체험활동	3.45	1.00	10/ 25324	79.30	.00	a, j>k>e, g>c h>e h>i>b, f>d
	b. 영어로 배우는 과학	3.01	1.03				
	c. 영어로 배우는 수학	2.88	1.07				
	d. 영어로 배우는 사회	2.84	1.06				
	e. 영어로 배우는 체육	3.14	1.16				
	f. 영어로 배우는 미술	3.00	1.11				
	g. 영어구현동화 듣고 책 만들기	3.11	1.14				

h. 영어연극교실	3.35	1.14
i. 영어방송국 운영	3.20	1.14
j. 노래, 댄스, 요리교실	3.41	1.20
k. 영어도서관, 멀티미디어센터	3.25	1.15

학생들의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필요한 학습활동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담당자나 학부모의 응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상황을 체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댄스, 노래, 요리교실 3.41, 영어 연극 교실 3.35, 영어방송국 운영이 3.20이었으며, 교과내용 중심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담당자,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적었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로 배우는 타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체육 3.14, 과학 3.01, 미술 3.00, 수학 2.88, 사회 2.84로 나타났다. 반면 각 교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응답빈도로 볼 때, 체육 37.0%, 미술 29.9%, 과학 27.6%, 수학 33.3%, 사회 34.3%였다. 표5의 사후검사에서도 체육이 수학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차이가 났고, 과학과 미술이 사회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담당자들의 응답과는 달리 학생들은 영어로 배우는 과학과 수학을 사회보다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다르다. 이는 학생들은 사회를 영어로 배우는 것이 과학이나 수학을 영어로 배우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타 교과를 영어로 배우는 것에 그리 재미를 느끼거나 타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같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내용중심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려면 학생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자료를 교사들에게 많이 보급해야 할 것이다.

3. 교사 및 담당장학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기대하는 영어능력향상 효과

교사 및 담당장학사, 학부모, 학생들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참여 후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언어영역별 기대에 대해 일원배치분산으로 알아보았다(표 6). 학생들에 대한 질문문항에서는 문장구조 이해란 항목을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문법과 관련된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강조하고 있지 않고, 또 어린 학생들이 문장구조란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담당자들의 응답을 알아본 결과 발음, 듣기, 말하기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대했고, 그 다음이 단어습득이었고, 문장구조 이해와 쓰기가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이들 수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F=47.73, P <.001, f,a,b>e>g,d$). 또한 학부모들의 응답도 발음, 말하기, 듣기가 같은 수준에 있었고, 그 다음 수준에 단어습득과 읽기가 있었으며, 쓰기와 문장 구조 이해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이들 수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8.16, P <.001, f,b,a>e,c>d,g$). 이는 교사와 담당장학사, 학부모는 모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통해 구어적 언어의 능력신장을 가장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단어습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고, 그 다음이 발음, 말하기가 같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 다음 수준에 듣기와 쓰기가 있었는데 각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62, P <.001, e>f, b>a,d$). 그리고 단어습득과 읽기 그리고 쓰기간에는 수준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62, P <.001, e>c>d$).

표 6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통해 영어능력신장 기대에 대한 일원배치분산

응답자	문항	평균	표준편차	df	F값	P	Scheffé
담당자	a. 듣기	4.09	0.57	6/1885	47.73	.00	f,a,b>e>g,d f,a,b>c
	b. 말하기	4.08	0.62				
	c. 읽기	3.56	0.86				
	d. 쓰기	3.42	0.86				
	e. 단어습득	3.76	0.77				
	f. 발음	4.15	0.69				
	g. 문장구조 이해	3.45	0.87				
학부모	a. 듣기	4.06	0.60	6/19557	138.16	.00	f,b,a>e,c>d,g
	b. 말하기	4.09	0.60				
	c. 읽기	3.93	0.65				
	d. 쓰기	3.77	0.74				
	e. 단어습득	3.95	0.65				
	f. 발음	4.10	0.64				
	g. 문장구조 이해	3.75	0.75				
학생	a. 듣기	3.48	0.90	5/13902	32.62	.00	e>f, b>a,d e>c>d
	b. 말하기	2.58	0.91				
	c. 읽기	2.55	0.93				
	d. 쓰기	3.42	0.93				
	e. 단어습득	3.73	0.90				
	f. 발음	3.60	0.95				

교사 및 담당장학사와 학부모의 응답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교실수업에서 부족한 단어습득을 확충할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습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학생들의 어떠한 영어학습 태도에 영향을 끼치

기를 기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7을 보면 교사와 담당장학사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학생들의 영어공부에의 흥미, 자신감, 학습동기, 영어권 문화이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의 문항에 거는 기대감이 비슷했다. 즉, 학생들의 영어공부에의 흥미, 자신감, 학습동기, 영어권 문화이해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문항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99, P>.05$). 반면에 학부모들의 응답을 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장 많이 가져줄 것을 기대했다. 그 다음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영어권 문화이해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표 7의 사후검사를 보면 자신감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흥미와 학습동기가 같은 수준이며, 영어권 문화이해가 그 다음 수준으로 각 수준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F=62.99, P<.001, b>a, c>d$). 한편 학생들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자신들에게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장 많이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였다. 영어 학습동기는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비슷한 수준인 동시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도 비슷한 수준이라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그 다음 가장 낮은 수준이 영어권 문화이해이다($F=15.13, P<.001, a>b>d$), ($F=15.13, P<.001, c>d$).

응답자들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교사와 담당장학사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 자신감, 학습동기,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모두에 골고루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부터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반면에 학생들은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살아나리란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통한 학습 태도변화에 거는 기대에 대한 일원배치분산

응답자	문항	평균	표준편차	df	$F_{\text{값}}$	P	Scheffé
담당자	a. 흥미	4.09	0.64	3/1077	1.99	.12	
	b. 자신감	4.07	0.67				
	c. 학습동기	4.12	0.61				
	d. 영어권 문화이해	3.99	0.76				
학부모	a. 흥미	4.04	0.65	3/11231	62.99	.00	b>a, c>d
	b. 자신감	4.11	0.61				
	c. 학습동기	4.02	0.65				
	d. 영어권 문화이해	3.88	1.19				
학생	a. 흥미	3.47	1.02	3/9252	15.13	.00	a>b>d c>d
	b. 자신감	3.38	1.03				
	c. 학습동기	3.45	1.01				
	d. 영어권 문화이해	3.29	1.06				

한편,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교재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선호하는 담당자(76.6%)가 가장 많았으며,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

하는 전담교사는 영어능력이 초등교원(71.0%)가 가장 적당하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해외 연수 기회 부여(49.8%),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의 혜택(21.7%), 별도 수당 지급(21.3)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부록 참조). 초등학교 내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립하고 원어민 등의 교사를 관리하며 직접 수업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전담인력은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므로, 그들에게 매력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또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교재로 학부모는 자체 제작 교재(82.3%)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인 전담교사로는 영어능력이 우수한 초등교원(49.0%)이 적당하며, 중등영어 자격증 소지자(22.6%), 민간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25.3%)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많았다. 학부모들은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원어민과 영어회화 기회(58.2%)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도우미(41.6%), 도서관 관리(41.2%) 등의 지원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V. 결론

효과적인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5개 시도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학습프로그램의 운영형태, 내용 구성, 학습활동,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영어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대한 선호도에서 교사와 장학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 방과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보다는 정규시간 중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가장 희망한 것을 볼 때, 정규 학교 수업 중인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수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교사와 담당 장학사, 학부모는 적절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정규 및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단기보다는 한 학기 정도의 긴 기간을 선호하였다. 이는 영어학습이 장기적인 학습프로그램으로 지속될 때, 학습효과가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우선하여 계획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프로그램 구성에 관해 교사 및 장학사, 학부모, 학생 모두 상황중심 체험학습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학생들은 문화중심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문화체험이 가장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이끌어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 설계 및 구축 단계부터 이러한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공간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초등학생들의 영어사용

기회와 영어학습기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영어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일회성 체험에 그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보다 문화체험 중심, 과업중심, 내용중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단순한 상황체험에서 문화중심, 과업중심, 내용중심 체험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모형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영어몰입교육과 관련된 내용중심 학습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낮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은 영어수업의 다른 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사들도 수업 부담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어몰입교육은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선별적,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재 및 학습자료를 보급해야 하며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통해 영어 학습을 위해 기본적인 영어단어의 습득, 영어발음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순으로 영어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상황을 중심으로 한 재미 위주의 학습보다는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며 지속적이고 진정성있는 영어체험 기회의 확대와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에 담당자와 학부모의 기대가 크며,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의 확대가 특히 학습동기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도시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시대적 요청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모형이 연구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오량, 부경순, 신동일, 이진경, 현석분. (2006). *초등 영어교육10년의 성과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1):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1997-15호[별책 14].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01). *초등학교 영어 6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영어교육 혁신방안 정책참고자료*.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 2006-75호. 서울: 교육부.
- 구애란. (2002). *영어동화 자율독(Free reading)이 읽기 흥미 및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부산.
- 김미경, 이재희, 강후동, 이선, 이해경, 신미정, 김동현, 김윤순. (2007)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컨설팅·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 (CRI 2007-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미. (2006).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초등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초등영어 교육*, 12(1), 63-94.
- 김혜정. (2002). *영어동화 읽기가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부산.
- 이병천. (2007a).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시설의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영어교육연구*, 19(4), 251-278
- 이병천. (2007b). 역할놀이 중심 영어체험학습시설 활용 방안에 따른 초등영어 수준별 과제활동의 필요성. *초등영어교육* 13(3), 5-33.
- 이재희. (2005).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외국어교육* 12(1), 137-159.
- 임희주. (2005). 영어체험마을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숙. (2000). *초등영어 읽기 쓰기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조지민, 김미경, 최인봉. (2007). *2006년 국가수준성취도 평가 연구 (RRE 2007-1-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Curtain, H., & Pesola, C. A. B. (1994). *Languages and children: Making the match*. Missy New York: Longman.
- Elley, W. B. (2000). The Potential of Book Floods for Raising Literary Level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6, 233-255.
- Elley, W. B. (2001). Book-based Approaches To Raising Literacy Levels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 127-146.
- Goodman, K. S. (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Kramsch, C. (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D. (1989). We acquire vocabulary and spelling by reading: Additional evidence for the input hypothesis. *Modern Language Journal*, 73, 440-464.
- Krashen, S. D. (1993).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 Mohan, B. (1986). *Language and content*. Reading, MA: Addison-Wesley.
- Stryker, S. B., & Leaver, B. L. (Eds.). (1997). *Content-based instruc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odels and method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부 록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관련 학부모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건립하게 될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9.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컨설팅팀

<기초조사>

1. 귀 닥 학생의 학년: _____ 학년
2. 귀하와 학생과의 관계는?: _____
3. 귀하의 연령은?:
 ① 10-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현 거주지:
 ① 시의 동지역 ② 시의 면지역 ③ 군의 읍지역 ④ 군의 면지역
5.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듣거나 혹은 참관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유형>

6.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정규시간 중 프로그램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시간 활용) _____
 ② 방과후 프로그램 _____
 ③ 주말 프로그램 _____
 ④ 방학중 프로그램 _____
7.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2주 ② 4주(1개월) ③ 8주(2개월) ④ 12주(3개월) ⑤ 한 학기
8.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정규 프로그램(특별활동 및 재량 활동 시간 활용)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2주 ② 4주(1개월) ③ 8주(2개월) ④ 12주(3개월) ⑤ 한 학기
9.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1주 ② 2주 ③ 3주 ④ 4주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27. 영어 사용 장소 및 상황체험 활동					
28. 영어로 배우는 과학교실					
29. 영어로 배우는 수학교실					
30. 영어로 배우는 사회교실					
31. 영어로 배우는 체육교실					
32. 영어로 배우는 미술교실					
33. 영어 구연동화 듣고 책 만들기					
34. 영어 연극 교실					
35. 영어 방송국 운영 및 활동					
36. 영어 문화 및 관습 체험 활동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리교실)					
37. 영어 도서관 및 멀티미디어자료 센터 운영					
38. 기타: _____					

<교재에 대하여>

39.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체험센터에서 직접 만든 교재 ② 유인물 활용
 ③ 서점에서 파는 교재 ④ 기타: _____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40.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위한 한국인 전담교사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어능력이 우수한 초등교원 ② 중등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민간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기타: _____

<학부모로서>

41. 영어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① 영어교과 보충 심화 학습 ② 영어 문화 체험
 ③ 원어민과의 영어회화 ④ 기타: _____
42.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위해 학부모로서 지원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학부모 명예교사
 ② 학부모 도우미(자료제작 등)
 ③ 영어 도서관 관리 (영어도서관 명예교사, 사서 등)
 ④ 기타 _____
43. 학부모님께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써주세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초등교육

주제어(key words): 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체험센터, 언어자료센터

강후동 (제1저자)

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Email: hdkang2k@cue.ac.kr

김미경 (제2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1

Email: mikyung32@kice.re.kr

이재희 (제3저자)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공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인천시 계양구 교대길 45

Email: jhlee55@gin.ac.kr

이선 (제4저자)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Email: sunlee@gjnu.ac.kr

Received in March, 2008

Reviewed in April, 200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y, 2008